

한국경제

금연자의 고민 "몸은 나아져 가는데, 변색된 치아는 어쩌나"

기사입력 2012-02-16 15:30



[박영희 기자] 잇따른 담배 값 인상 기류에 애연가들의 불만이 많다. 얼마 전 KBS2TV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서는 서민경제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담배 값 인상을 풍자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담배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뤄 왔던 금연 목표를 실현할 기회라는 입장이다. 이에 담배 값 인상과 함께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금연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연 이후 시작되는 금단현상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단현상은 흡연에 의해 망가졌던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신호다. 금단현상을 이겨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신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자주 나왔던 헛기침이 감소하고 ▲음식 맛을 정확히 느낄 수 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기분이 들고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화 되는 등의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하지만 금연 이후에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 변화가 있다. 바로 흡연으로 인한 치아의 변색이다. 흡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온 니코틴은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불가능할뿐더러 흡연 중에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완벽히 치아사이에 낀 니코틴을 제거할 수 없는 일이다.

덕분에 흡연으로 인한 치아 변색이 콤플렉스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치아 미백 시술이다. 최근에는 1day 화이트닝 혹은 3day 화이트닝 시술 등 초단기 미백시술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는 미백 시술도 늘어났다.

미백치료를 선택할 때에 알아둬야 할 상식이 있다. 대부분 잘못된 미백 관련 상식으로 시술을 꺼려하거나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미백 효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치아 미백의 잘못된 상식은 대표적으로 스케일링이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치아미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니코틴과 치석제거가 되어 원래 치아보다 하얗게 보일 수 있으나, 치아 미백과는 원리가 다르다. 치아 미백은 치아 안쪽에 있는 색소를 분해하여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치아 미백이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는 사람도 보인다. 이는 치아 미백 시술 이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가 시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는 옳바르지 못하다. 치아 미백은 치아의 겉을 깎아내는 것이 아닌 치아 안쪽 색소를 분해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파는 미백 제품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백 제품의 원리는 치아 미백제에 함유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치아에 붙은 착색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나온 미백 제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백 성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에 미

백 시술과 함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현 원장)

한경닷컴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kr

- ▶ **김수현 못된 손 비화, 시행착오 끝에 완성?**
- ▶ **윤종신 희귀병 고백, 치질의 원인도 알고 보니...**
- ▶ **램지가 골 넣으면 유명인 죽는다? '아론 램지의 저주 충격'**
- ▶ **한가인 콧날, 추위와의 사투에도 서있다! '김수현 반할만 하네~'**
- ▶ **'무신' 홍아름, 볼 때마다 매 맞는 여자 '볼매녀' 등극! '안타까워~'**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38429>
